

나주시, 금성산 지뢰제거 대신 국정과제 채택 총력

전국 334개 시민단체 공동 '전국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후방지역 37곳 완전 제거 촉구

나주시는 전국 334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연대회의' 출범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금성산 지뢰 제거에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334개 시민단체가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 (이하 전국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장항습지지뢰폭발사고대책위,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사)평화나눔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시민평화포럼,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전국 33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연대회의는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재산을 비롯 경기, 충청, 부산, 울산, 전북 등 37개 후방지역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신 국정과제안 전달

식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 대선 중앙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재국 공동의장은 "UN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지뢰행동준준을 현실에 맞게 도입해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연대회의는 국정과제 채택 촉구를 발표하고,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제거 전담 부처를 국방부에서 국민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연대회의는 '지뢰제거국제표준행동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과 관련한 지뢰 완전제거 추진', '후방지역 지뢰지대 37개소 정보공개 및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직속 지뢰제거위원회 설치', '지뢰제거기본법 제정', 국제지뢰금지조약인 '오타와 협약 체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는 단위면적 당 지뢰 매설량이 세계 1위다. 6.25 전쟁과 함께 한반도 곳곳에 매설된 지뢰는 200만 발에 달하고 현재 제거하지 못한 지뢰는 100여만 발로 추정하고 있다.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등 전국 3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후방지역 지뢰 완전 제거를 촉구했다. <나주시 제공>

전국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뢰 폭발로 6500여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6월 한강유역에 위치한 경기 고양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피해 당사자인 김철기 전 민족문제연구소 고양 파주지부장은 사고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지뢰 폭

발사고의 심각성과 후방지역 지뢰제거 방안과 실질적인 필요성을 언급해 기자회견장을 숙연하게 했다.

전국연대회의는 촉구안 발표 후 국정과제안을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강진군 '마을 만들기' 추진

성전면 송학·당산마을

군동면 덕천마을 선정

강진군이 올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강진 목리, 성전 월남, 작천 야동, 성전 송학, 당산, 군동 덕천 6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 목리, 성전 월남, 작천 야동은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성전 송학·당산, 군동 덕천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 후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쉬 수 있고 모일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을 정비하고 있다.

또 마을 방송 청취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을 각 세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강진읍 목리, 성전면 월남, 작천면 야동 등 3개 마을은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농산어촌 마을의 문화·복지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달현 강진군 농어촌개발과장은 "농어촌 마을의 기본적인 인프라 정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농산어촌 마을의 주민복지환경 개선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주민재산권 보호 지적제조사

장흥군-LX 광주전남본부 계약

장흥군이 공정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제조사 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위탁계약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제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적제조사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장흥군은 2022년도 지적제조사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해 관산 성산지구, 회진 덕산지구(2개 마을, 717필지, 29만 6750㎡) 2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제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적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 지적제조사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 지적제조사 지구의 불부합지를 빠르게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자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이 지난 15일 총 7명의 동네작가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성군 제공>

"귀농·귀촌 재미 알릴 동네작가가 떴다"

장성군, '엘로우시티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7명 선정 위촉장 수여

"귀농·귀촌 재미 알릴 동네작가가 떴다." 장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주 관심사인 지역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엘로우시티 귀농·귀촌 동네작가(이하 동네작가)'를 운영한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총 7명의 동네작가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귀농·귀촌 과정, 마을 및 영농 현장, 각종 생활정보 등을 귀농·귀촌인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도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네작가의 콘텐츠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작가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동네작가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생생한 정보 전달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한재공원에 할미꽃 활짝 피었습니다



17일 장흥군 회진면 한재공원 능선을 따라 할미꽃이 만개했다. 특량만을 한눈에 담고 있는 한재공원은 10ha 면적의 국내 최대 규모 할미꽃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제공>

함평군, 농업 기반시설 정비 169억원 투입

함평군이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65억원), 지표수보강 개발(2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37억원),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 정비(18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8억원), 발기반 정비(7억원) 등이다.

육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정비한다. 함평군은 매산제, 옥산제 등 재해위험 저수지 4곳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신규 지구로 금산제, 학천제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올해 발주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